화보로 보는 '2007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디지털영상전' 이모저모

5월 17일~20일까지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펼쳐져, 6만여 명의 참관객 관전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규모의 디지털 이미징 전시회인 '2007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디지털영상전'이 지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코엑스 본관 1층 태평양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금년에 16회째를 맞이한 이 전시회에는 19개 국에서 175여 개 사(570여개 부스)가 참가하여 급속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사진 영상장비를 선보였다. 특히 삼성테크윈을 비롯하여 카메라 메이저 업체들이 대거 참가하여 포토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선보이고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벌여 전시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전시기간동안 수많은 전문 · 취미 사진가들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까지 총 6만여 명의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찾아 사진영상분야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호응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기사는 44쪽에 계속〉

|취재/박지연 기자|

▶ 첫날 전시회 시작 전부터 참관객들이 몰려 동 전시회에 대한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 전시장 입장을 위해 참관객들이 줄서서 현장 등록을 하고 있다.

▶ 전시회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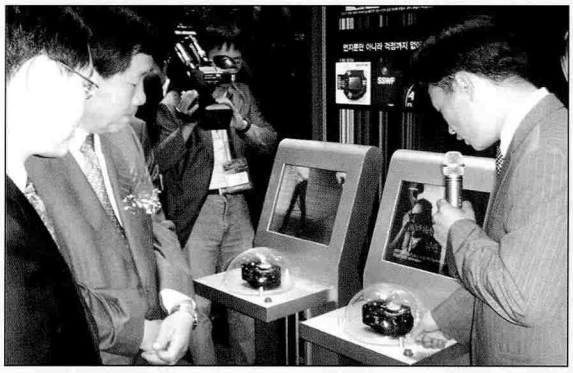
▶ 5월 17일 전시회 개막식과 함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이오테크닉스 성규동 사장, 세기판매 이봉훈 사장,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김대곤 사장, 니콘이미징코리아 야마구치 노리야키 사장, 한국프로사진가협회 김정수 이사장, 한국광학기기협회 이중구 회장, 산업자원부 김용근 차관보, 코엑스 배병관 사장, 한국사진기재협회 이병극 회장, 이오시스템 이원승 사장)

▶ 코엑스 현승태 팀장으로부터 전시회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내외빈의 모습

▶ 카메라업체들 부스에서는 연일 모델들을 앞세워 참관객들이 마음껏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 마치 촬영대회를 연상시키는 듯 했다

▶ 도우미들의 설명을 들으며 먼저 삼성테크윈 부스를 둘러보고 있는 내외빈의 모습

▶ 참관객들이 카메라 신제품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다.



▶ 산업자원부 김용근 차관보와 한국광학기기협회 이중구 회장이 올림푸스의 이두영 차장으로부터 제품설명을 듣고 있다.

▶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등 출력업체에서 마련한 셀프인화코너가 참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다.

▶ 전시기간동안 업체들이 마련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18일 니콘 부스에서 이창준 강사가 참관객들을 상대로 디지털카메라 강연을 펼치는 광경.

▶ 전시회장 한쪽에 마련된 다양한 주제의 사진전은 참관객들에게 전시의 재미를 더해주었다.